오가는 이의 눈빛과 마음을 사로잡는 **조경업무의 달인!**

시설팀 육심성 사원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상지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무심코 바깥세상에 눈길을 주면 생각지 못한 선물을 접하게 된다. 모습을 감추고 있던 하트 모양의 잔디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다. 대학병원. 누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게 되는 이곳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묵묵히 그 하트를 만든 이가 있다. 바로 우리 병원 시설팀 육심성 사원이다.

타고난 부지런함과 섬세한 손재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육심성 사원.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달인의 향기가 묻어났다.

건조한 공간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달인의 힘!

그의 작은 소망은 건조한 공간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지저분하고 쓸모없게 여겨지던 공간을 하트 동산으로 탈바꿈시켰듯 그의 바람은 곳곳에 스며들어 빛을 내고 있다.

경력 1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펼치는 달인!

그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실내외 조경을 담당하고 있다. 조화 디자인으로 시작했지만 생화에 흥미를 느끼면서 경험을 쌓아 온지 어느덧 10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이다.

식물의 컨디션을 살뜰하게 살피는 달인의 손길!

그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병원 라운딩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식물의 상태를 살피는데, 흡사 매일 오전 회진을 도는 의료진을 연상케 한다. 그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식물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 것처럼,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매일 부딪히는 게 힘들어하는 환자들이잖아요. 정성껏 병원의 식물을 돌본다고는 하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힘없이 쳐져 있는 식물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다시 생기를 찾을 땐 누구보다 기쁘고요."

사계절의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달인의 진가!

그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며 식물을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오히려 그 점이 이 일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꽃이 피고, 지고, 낙엽이 물들고,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눈이 내려앉고, 다시 꽃이 피고. 사계절을 고스란히 느끼고 다른 이에게 좀 더 아름답게 전달해 주는 일, 그로 인해 잠시나마 보는 이에게 평안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그다.

겸손도 소용없는 숨길 수 없는 달인의 향기!

잘 관리된 나무와 꽃이 핀 화분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법. 육심성 사원에게 식물 관리 노하우를 물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든지 다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부지런함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험이죠.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운데, 답이 됐나요? 하하. 앞으로도 환자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노력에 양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